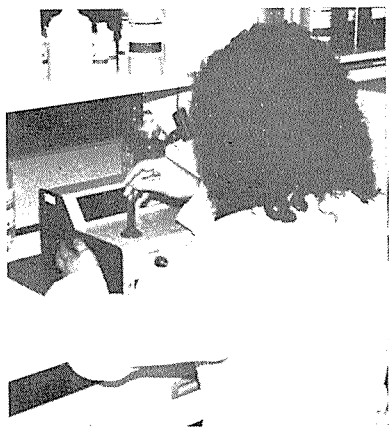


불규칙한 식사와 술이, 자가치료로서 간염을

이순우씨는 39세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부산시 동래구 구서 2동 742-23번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창조했던 이순우씨는 지난 84년 10월 우연한 인연으로 부산지부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에 협증이 생기면서 B형바이러스간염의 보균자라는 판정이 차가운

간장 장해



불러일으킨 간장 장애

극복한 이순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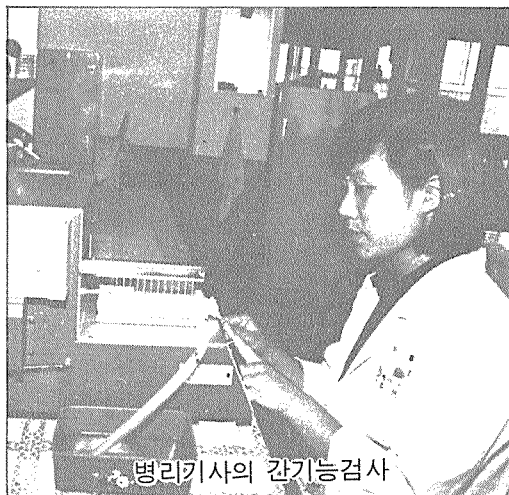
가을바람과 함께 닥쳐왔다.

8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이순우씨는 2년간에 걸친 투병끝에 한가닥의 빛을 찾을 수가 있었다.

건강검사를 받아 다시 찾은 건강

『지난 84년도말 동래(東萊) (부산시 동래구 구서2동 742-23번지)에서 반상회를 실시할 때 반상회보에서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검사안내를 보고 건강종합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충동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올해 나이 39세로 1남2녀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독실한 카톨릭신자이기도 한 이순우씨는 지난 84년 10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간기능검사를 받았다.



병리키사의 간기능검사

남서중 사업과장은

● 84년 10월 처음 건강검사를 받고나서 간기능검사의 수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차후 검사까지 하도록 유도 했었지요. 그것은 이순우씨뿐 아니라 협회에서 검사를 한 사람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건강설문조사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

그는 검사결과 크나큰 충격과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고 투병생활을 실시했다. 그결과 86년 현재에 이르러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된 이순우씨.

자신의 건강을 해친 불규칙한 식사와 술

『제가 건강관리협회를 알게 된 것은 저희 회사(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직접 와서 직원들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요』 건강관리협회에 대하여 사전에 조금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순우씨는 『저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식사도 하고,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간에 부담을 준 것을 지금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건강을 해친 요인을 얼핏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순우씨, 『지난 84년 10월 간기능검사에서 GOT, GPT의 수치가 358, 340의 높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HBs Ag (전염성간염항원)를 보유한 상태로써 B형바 이러스보균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간에 협증이 생겼다는 상태도 됩니다』 옆에 자리를 같이 한 남서중서무과장이 이순우씨의 첫 검사결과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저는 자가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심했었지요, 인지쑥, 제첩(조개국) 등을 다려서 먹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여 나의 건강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술은 일체 금했지요, 그리고 때때로 최인숙병리사께서 지도를 해주더군요. 집에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과로를 하지 말라는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최인숙병리사의 치료에 대한 지도가 너무나도 고맙다는 이순우씨는 『저의 몸에 전염성 간염 항원이 있음을 알고 저는 집사람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집사람(윤윌림·39세)은 결혼하기 전에 간호원 생활을 하여 집안식구들 건강을 아주 잘 체크 해주었습니다. 집사람은 제일 먼저 가족 모두가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건강종합검사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직원들과의 술과 석등은 가급적 피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부인 윤윌림씨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부인을 아끼는 애처가 상을 엿볼 수가 있었다.

생활의 행복을 창조하려면 건강이 가장 필요

『그후 2·3차 검사에서 간기능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2개월간의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서 생활하였기에 기쁨은 더욱 더 컸습니다.』 2·3차 검사에서 간기능검사 수치가 GOT·GPT 180, 160으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 기자는 모든 생활의 행복을 창조하는데는 건강이 우선임을 다시한번 느낄 수가 있었다.



정남호 홍보담당자는

협회의 홍보방침은 건강할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학교, 조합등 실무자들과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다지고 있는 것도 우리 지부 홍보사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6년 7월 8차 검진에서 건강을 찾는 기반을 마련.

『저는 그후로 매일매일 자가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술좌석, 불규칙한 식사시간등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오로지 건강을 찾고자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86년 7월 마지막으로 8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에 가까운 GOT 40, GPT 35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지난 자국이 이젠 환한 빛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는 건강관리협회의 직원이 된 느낌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관리협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저역시 가장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서민층이 찾아가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검사사비가 부담이 없기에 요즘에도 친구들이 건강검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건강관리협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어떨때는 제가 건강관리협회 직원이 된 것처럼 건강관리협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을 할때는 오해도 적지 않게 받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이번에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밝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의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부인과 자녀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다시한번 말한다.

검사를 한 사람에게는 일일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기자는 이순우씨와 인터뷰를 마치고 부산지부에 들러 그에 대하여 좀더 깊숙히 알아보기로 했다.

『이순우씨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84년 10월 처음 건강검사를 받고나서 간기능검사의 수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차후 검사까지 하도록 유도 했었지요. 그것은 이순우씨뿐 아니라 협회에서 검사를 한 사람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건강설문 조사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건강할 때 협회를 찾아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남서중사업과장은 말한다.

부산시 660만가구에 60만장의 반사회보를

『또한 협회에서는 부산시 660만가구에 60만장에 달하는 반사회보에 건협외 안 내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협회의 사업방침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서 가정주부나 가족들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산지부의 홍보방침을 말한다.



권오중사무국장은

저희 지부의 사업방침은 부산시민 모두에게 건강할때 건강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필요성을 주로 계몽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합니다.

한편 부산지부 홍보담당자인 정남호씨는 『협회의 홍보방침은 건강할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학교, 조합등 실무자들과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다지고 있는 것도 우리지부 홍보사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정남호씨는 협회의 숨은 일꾼이라고 옆자리에 앉은 남서중과장이 칭찬해 준다.

간염예방 접종은 어린이 들에겐 필수적……

한편 이순우씨를 담당했던 최인숙병리사는 『우리나라의 간질환이나, 간염은 서구나 아프리카등과 비교할때 현저하게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간건병등의 질환은 대개 알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프리카는 영양실조에 따른 간질환이 많다고 한다.

최인숙 병리사는 『우리나라의 간질환은 대부분 간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간건병이나 간암 환자의 90%가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한 증거』라고 설명해 주면서 간염예방은 어린이들에게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건강할 때 건강검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편 1978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오중사무국장은 부산지부의 청사진을 이렇게 말한다.

『저희 지부의 사업방침은 부산시민 모두에게 건강할때 건강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필요성을 주로 계몽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방침을 말하는 권오중국장의 얼굴에서 사업의욕이 넘치는 것을 기자는 느낀다.

병든 다음 치료보다 건강할때 건강검사를 받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동래 지하철역에서 부산지부의 계몽현판을 기자는 볼 수가 있었다.

옆에 서있는 여자학생들의 대화가 기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영숙아! 저게 뭐꼬?』

『뭐-.』

『병든다음 치료보다 건강할때 검사받자는 저거 말이다.』 오일민 기